

해외 라이선스 패션잡지 『VOGUE』 에 나타난 소재 관련 수식어표현의 한일 비교 연구

염혜정* · 김은정¹ · 김지선¹ · 김초롱¹ · 정성석²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인간생활과학연구소* · 전북대학교 의류학과¹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응용통계연구소²

Korean-Japanese Comparative Study on Material Related Modifier which is Represented in Oversea Licensed Fashion Magazine 『VOGUE』

Yum Haejung* · Kim Eunjung¹ · Kim Jiseon¹ · Kim Chorong¹
Chung Sunguk²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Chonbuk National University¹

Dept. of Statistics & Institute of Applied Statist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²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garment which are 'written(or described)' in fashion magazines. With examples particularly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aims at pointing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escribed by modifier in oversea licensed fashion magazine. It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to provide fundamental document, which can estimate the aspects of fashion that has global features and localized characteristics. This is a follow-up of a previous study, covering its range of 『Vogue Korea』 and 『VOGUE Japan』 research document, and we researched on the materials that have been mentioned most frequently in each country from May to August of 2012. To target analyzing list of top 6 material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d of material represented by Korean and Japanese fashion magazines and modifier's properties. As established in the previous study, to designate each contrary concept to a total of 8 groups as an analyzing frame, we researched the properties of each material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Corresponding author: Yum Haejung, Tel. +82-63-270-3849, Fax. +82-63-270-3799
E-mail: yum3849@jbnu.ac.kr

This research was presented at the 2013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Business.

Key words : fabric(소재), fashion culture(패션문화), fashion magazine(패션잡지), modifier(수식어표현), Vogue Japan(보그 저팬), Vogue Korea(보그 코리아)

I. 서론

사회 인류학자 Brian Moeran(2004)에 의하면 “패션은 언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패션이 무엇인지 정의해주는 것은 언어이고, 언어는 특히 ‘취향(taste)’의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의복을 ‘패션’으로 변환시킨다.”(Moeran, 2004, p. 35).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문화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표현 방법을 통해 패션이라는 다양한 가치와 이미지를 생산해 내고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혁명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와서는 그 현상은 더욱 다변화, 가속화되고 있다.

일찍이 『모드의 체계』라는 저서를 통해 패션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Roland Barthes(as cited in Moeran, 2004)는 특히 패션잡지 속에 나타난 ‘글로 쓰여진(written)’ 의복에 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패션잡지 속 글로 쓰여진 의복은 사진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의복 그대로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패션잡지는 실제 의복에서 이미지 의복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쓰여진(또는 묘사된(discribed)) 의복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지에서 언어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미 선행된 연구(Yum, Kim, Kim, Kim, & Chung, 2014)의 후속 연구로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착안하여 패션 잡지 속 ‘글로 쓰여진(또는 묘사된)’ 의복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재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을 분류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서 문화적, 지리적으로 비슷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해외 라이선스 패션잡지 속에 ‘글로 쓰여진’ 소재에 관한 수식어표현들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소재와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Kim & Yum, 2013; Park, 2012) 및 3D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소재 개발(Choi & Kim, 2012; J. Lee, Kim & Kim, 2013) 등에 관한 연구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소재와 관련하여 국가별 특성을 비교분석한 구체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잡지를 소재로 한 국가별 비교연구의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역사상 전례 없이 글로벌한 규모로 정보의 홍수를 이루어내고 있는 21세기 사회에 있어서, 패션은 어떤 면에서 글로벌한 특성을 지니며, 어떤 면에서 로컬적인 특성을 지니는지를 가능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미 선행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자료의 수집 방법은 선행연구와 같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진행된 소재와 색상을 내용으로 하는 총 610개(한국판 257개, 일본판 353개)의 수식어표현들 중, 소재에 해당하는 내용만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범위는 해외 라이선스 패션잡지인 한국판과 일본판 『VOGUE』를 연구 자료로 하여 각 나라별로 2012년 S/S(5월부터 8월까지) 기간의 4개월분, 합계 8개의 잡지를 분석하였다. 객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총 8개의 패션잡지 목차에서 ‘패션’란으로 분류된 기사들로 한정하였으며, 그 기사들에서 제목과 소재목 그리고 사진 자료의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 소재의 종류와 그 소재를 수식하는 어구들을 각각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총 339개(한국 145개, 일본 194개)의 소재들을 최종 수집하여, 먼저 2012년도 5월부터 8월까지 소재의 종류와 수식어표현들의 빈도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기사의 내용 중, 무늬/문양, 소재/천/원단 등과 같이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에는

PATTERN, FABRIC 항목으로 하여 따로 분류하였다. 둘째, 구체적인 소재 명이 언급된 경우에는 상위 4위까지 해당되는 소재들을 추출하여, 소재별 수식어구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로 촉각과 시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재의 표면적인 느낌인 TEXTURE를 세 번째 항목으로 하여 한일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른 분석방법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설정했던 바와 같이 각각 상반되는 개념을 지니는 FEMININE(HARD&WILD), FEMININE(SOFT&LIGHT), ELEGANCE, SPORTY, MAXIMAL, MINIMAL, RETRO & NATURAL, TRENDY의 총 8개의 그룹을 기본 틀로 하여, 각 소재별 특성과 한일 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 번째 항목의 경우는 현대패션디자인(Park, Lee, Yum, Choi, & Park, 2006) 문헌내용을 참고하여 러프(rough), 클린(clean), 드라이(dry), 웨트(wet), 하드(hard), 소프트(soft), 라이트(light), 헤비(heavy)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총 4쌍의 그룹을 분석 틀로 하였다(Figure 3). 그리고 모든 항목에서 분석 결과를 보다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표로 정리하고 레이더 차트로 표현하였으며, 수식어표현의 구체적인 예는 국가별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을 추출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수식어표현들을 표로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예(Moeran, 2004)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였다. 즉 'hwaryö-han(화려한)'과 같이 한글은 정서법자료(S. Lee, 1990)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고,

'hanayaka-na(華やかな)'와 같은 일본어는 '일본어 입력표기법'에 의해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클래식한'과 같이 수식어표현이 외래어인 경우에는 'classic-han'과 같이 원어 그대로 쓰고 기움임체로 표시하였다. 특히 영문 외에도 한글과 일본어를 각각 병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쁜', '귀여운', '큐트한' 등과 같이 같은 의미라도 외래어와 모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로 강조하여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III. 연구의 결과 및 고찰

1. 소재 빈도의 비교 분석

한국과 일본을 종합한 소재의 빈도는 총 339개로 나타났다. 그 중 PATTERN과 FABRIC 항목은 특정 소재를 지칭하지 않고, 무늬/문양 또는 소재/천/원단 등과 같이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그 결과 PATTERN은 46개(13.6%), FABRIC은 42개(12.4%)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소재 명칭이 언급된 것은 LEATHER 25개(7.4%), LACE 21개(6.2%), KNIT 16개(4.7%), DENIM 14개(4.1%) 순으로 나타났다. FABRIC 및 PATTERN의 2개 분류와 상위 4위까지 해당하는 소재 항목별로 수식어표현의 예시들과 그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를 실례로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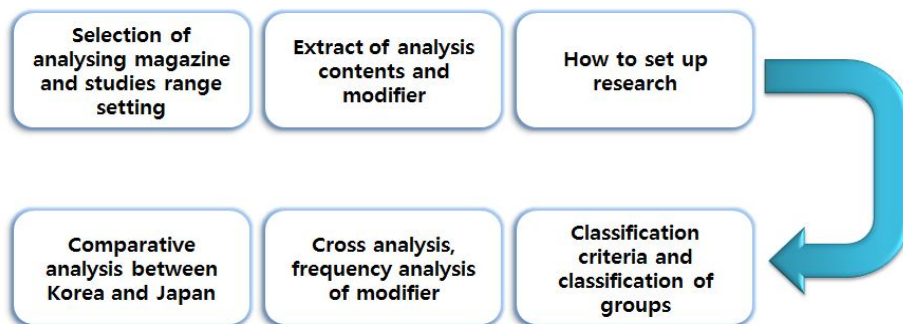


Figure 1. Flowchart of the Study

Table 1. Classification and Word Distribution of Modifier

	KOREA		JAPAN	
	Modifier(N)	Photo	Modifier(N)	Photo
FABRIC	yalbŭn(얇은)(1) tong-il-han(동일한)(1)	 VK7 p.309 yalbŭn(얇은)	jyouthinn-na(上品な)(3) luxury-na (ラグジュアリーな)(3) classical-na (クラシカルな)(2) sennsai-na(繊細な)(2) zannsinn-na(斬新な)(2)	 VJ8 p.65 jyouthinn-na (上品な)
PATTERN	hwaryŏ-han(화려한)(4) k'ŏdaran(커다란)(2) paint-ga hŭllŏnaerin-tŭt'an(페인트가 흘러 내린 듯한)(1) kangryŏi-han(강렬한)(1) changshik-toen(장식된)(1)	 VK7 p.106 hwaryŏ-han (화려한)	hanayaka-na (華やかな)(3) graphical-na (グラフィカルな)(2) kaigara-ya-hitode-no-g ennsouteki-na(貝殻やヒトデの幻想的な)(1) folklore-na (フォークロアな)(1) nostalgic-na (ノスタルジックな)(1)	 VJ6 p.166 hanayakana (華やかな)
LEATHER	pudŭrŏun(부드러운)(3) classic-han(클래식한)(1) chil cho-ŭn(질 좋은)(1) bling bling-han(블링블링한)(1) sŏro tarŭn texture-ŭi(서로 다른 텍스처의)(1)	 VK8 p.348 pudŭrŏun (부드러운)	sinayaka-na (しなやかな)(2) jyousitu-na(上質な)(1) jyouthinn-na(上品な)(1) soft-na(ソフトな)(1) dokusouteki-na (独創的な)(1)	 VJ8 p.208 sinayaka-na (しなやかな)
LACE	sŏmse-han(섬세한)(1) pantchaginŭn(반짝이는)(1) asŭlasŭl-han(아슬아슬한)(1) kwannŭng-jŏgin(관능적인)(1) allok-dallo-kan(알록달록한)(1)	 VK8 p.337 asŭlasŭl-han (아슬아슬한)	sensual-na (セシユアルな)(2) couturelike-na (クチュールライクな)(1) kirabiyaka-na (きらびやかな)(1) elegant-na (エレガントな)(1) sennsai-na(繊細な)(1)	 VJ6 p.264 sensual-na (セシユアルな)

Table 1. Continued

	KOREA		JAPAN	
	Modifier(N)	Photo	Modifier(N)	Photo
KNIT	yŏn-han(연한)(1) pudŏrŏ-un(부드러운)(1) hwaryŏ-han(화려한)(1) sarangsŏrŏ-un (사랑스러운)(1) p'ogŭn-han(포근한)(1)		usude-no(薄手の)(1) simple-na(シンプルな)(1) atataka-na(暖かな)(1) casual-na (カジュアルな)(1) zakurito-annda(ざっくり と編んだ)(1)	
		VK8 p.368 p'ogŭn-han (포근한)		VJ7 p.243 zakurito-annda (ざっくりと編んだ)
DENIM	pocket angami poil tŭt atchilhan (포켓 안감이 보일 듯 아 짝한)(1) tight-han(타이트한)(1) vintage-han (빈티지한)(1) hemline-ŭi ori p'ul-lin (헴라인의 올이 풀린)(1) boxy-han(박스한)(1)		authentic-na (オーセンティックな)(1) irootikann-noaru (色落ち感のある)(1) impact-no-arū (インパクトのある)(1) metallic-na (メタリックな)(1)	
		VK6 p. 280 ōlluk-tŏlluk'age (얼룩덜룩하게)		VJ7 p.244 vintagelike-na hyoujyou-wo ikasita (ヴィンテージライ クな表情を生かし た)

Key to abbreviations : VK - Vogue Korea / VJ - Vogue Japan

FABRIC 및 PATTERN의 한일 빈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PATTERN 14개(9.7%)만이 한일 전체 빈도순위에 부합하여 나타났으나, 일본은 FABRIC 40개(20.6%), PATTERN 32개(16.5%) 항목이 높게 나타나 전체빈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재별로 보면 한국은 LEATHER 10개(6.9%), 일본은 LEATHER 15개(7.7%), LACE 14개(7.2%)가 전체 빈도 순위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어떤 한 소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보다는 골고루 분포된 반면에, 일본은 FABRIC 40개(20.6%), PATTERN 32개(16.5%)의 항목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그 외에도 KNIT와 DENIM은 국가별 소재 빈도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두루

나타난 이유로 전체 빈도에서는 상위 3, 4위에 해당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KNIT와 DENIM이 기본 아이템으로 한국과 일본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착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Table 2).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Figure 2와 같다. 우선 특징적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항목은 PATTERN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독 PATTERN 항목에서만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 나타난 빈도가 월등하여 심지어 전체에서 1순위를 차지한 FABRIC 항목에 비해 더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비해 일본은 특정 소재의

명칭을 언급하기 보다는 천이나 소재 전체를 수식하는 일본 잡지 기사의 표현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FABRIC 보다는 PATTERN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각 항목별 수식어표현의 비교분석

앞서 연구의 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TTERN 및 FABRIC, 소재별, TEXTURE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of Material per Country

FABRIC	Country		Total
	KOREA	JAPAN	
BEADS	4 (2.8%)	6 (3.1%)	10 (2.9%)
CASHMERE	1 (.7%)	3 (1.5%)	4 (1.2%)
CHIFFON	6 (4.1%)	4 (2.1%)	10 (2.9%)
DECORATION	7 (4.8%)	3 (1.5%)	10 (2.9%)
DENIM	6 (4.1%)	8 (4.1%)	14 (4.1%)
EMBROIDERY	8 (5.5%)	5 (2.6%)	13 (3.8%)
FABRIC	2 (1.4%)	40 (20.6%)	42 (12.4%)
FEATHER	1 (.7%)	3 (1.5%)	4 (1.2%)
FRINGE	5 (3.4%)	2 (1.0%)	7 (2.1%)
FUR	6 (4.1%)	4 (2.1%)	10 (2.9%)
GINGHAM	8 (5.5%)	0	8 (2.4%)
KNIT	7 (4.8%)	9 (4.6%)	16 (4.7%)
LACE	7 (4.8%)	14 (7.2%)	21 (6.2%)
LAMB	0	6 (3.1%)	6 (1.8%)
LEATHER	10 (6.9%)	15 (7.7%)	25 (7.4%)
LUSTER	0	11 (5.7%)	11 (3.2%)
MOTIF	1 (.7%)	2 (1.0%)	3 (.9%)
ORGANZA	7 (4.8%)	0	7 (2.1%)
PATTERN	14 (9.7%)	32 (16.5%)	46 (13.6%)
PLEATS	4 (2.8%)	5 (2.6%)	9 (2.7%)
SEQUIN	1 (.7%)	2 (1.0%)	3 (.9%)
SILK	8 (5.5%)	1 (.5%)	9 (2.7%)
SPANGLE	6 (4.1%)	7 (3.6%)	13 (3.8%)
STRETCH	0	4 (2.1%)	4 (1.2%)
SUEDE	4 (2.8%)	0	4 (1.2%)
TULLE	3 (2.1%)	2 (1.0%)	5 (1.5%)
TWEED	1 (.7%)	2 (1.0%)	3 (.9%)
WOOL	10 (6.9%)	1 (.5%)	11 (3.2%)
OTHERS	8 (5.5%)	3(1.5%)	11 (3.2%)
Sum	145 (100.0%)	194 (100.0%)	3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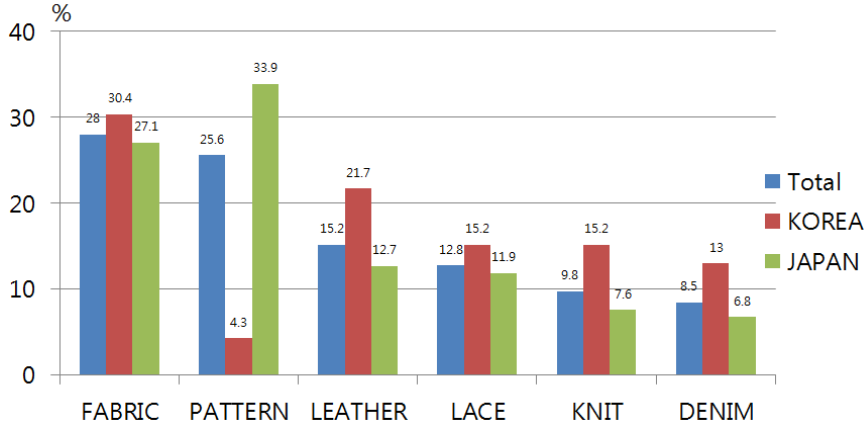


Figure 2. Frequency Analysis of Material

1) PATTERN 및 FABRIC

FABRIC 항목과 관련된 수식어표현의 경우,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 그룹들 중 FEMININE(SOFT&LIGHT) 14개(33.3%), ELEGANCE 13개(31%)의 두 그룹에 해당하는 수식어표현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FABRIC에 대한 언급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FEMININE(SOFT&LIGHT)와 ELEGANCE 그룹과 같이 일본 특유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감각을 위주로 많이 표현되었던 영향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한국과 일본을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레이더 차트로 표현해 보았다. 가장 많이 나타난 수식어표현을 보면 한국의 경우 ‘얇은’, 일본의 경우 ‘비치는 느낌이 있는(透け感のある)/비치는(透ける)’, ‘섬세한(繊細な)’, ‘시어한(シアーな)’ 등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여름 시즌의 영향을 받은 듯 얇은 소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니트와 킬트, 압축 펠트라는 소프트한(ニットとキルト、圧縮フェルトというソフトな)’이라는 수식표현도 있었다.

PATTERN의 경우, 전체적으로 MAXIMAL 16개(34.8%), TRENDY 11개(23.9%), RETRO &

NATURAL 9개(19.6%)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MAXIMAL과 RETRO & NATURAL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다수 나타나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 TRENDY 항목이 유달리 많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PATTERN 항목에서도 앞서 FABRIC 항목과 마찬가지로 일본 쪽에서 수식어표현이 고르고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AXIMAL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즌에 화려하고 대담한 패턴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인기를 끌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5).

다음으로 Table 6의 레이더 차트를 살펴보면, 한국은 MAXIMAL 그룹의 수식어표현이 많이 나타난 반면에, 일본은 TRENDY 그룹을 선두로 하여 다수의 그룹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수식어표현을 보면 한국에서는 ‘화려한’, ‘커다란’ 등이었으며, 일본에서는 ‘선명한(華やかな)’, ‘그래피컬한(グラフィカルな)’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플라워 패턴의 나염 프린트가 돋보이는’이라는 식물 패턴이 나타난 반면, 일본에서는 ‘조가비와 불가사리의 환상적인(貝殻やヒトデの幻想的な)’이라는 바다를 이미지로 한 패턴이 나타나 대조적인 인상을 주었다.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FABRIC」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0	-	1	2.5	1	2.4
FEMININE(SOFT&LIGHT)	1	50.0	13	32.5	14	33.3
ELEGANCE	0	-	13	32.5	13	31.0
SPORTY	0	-	0	-	0	-
MAXIMAL	0	-	4	10.0	4	9.5
MINIMAL	1	50.0	2	5.0	3	7.1
RETRO & NATURAL	0	-	3	7.5	3	7.1
TRENDY	0	-	4	10.0	4	9.5
Sum	2	100.0	40	100.0	42	100.0

Table 4.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FABRIC」, Examples of Mod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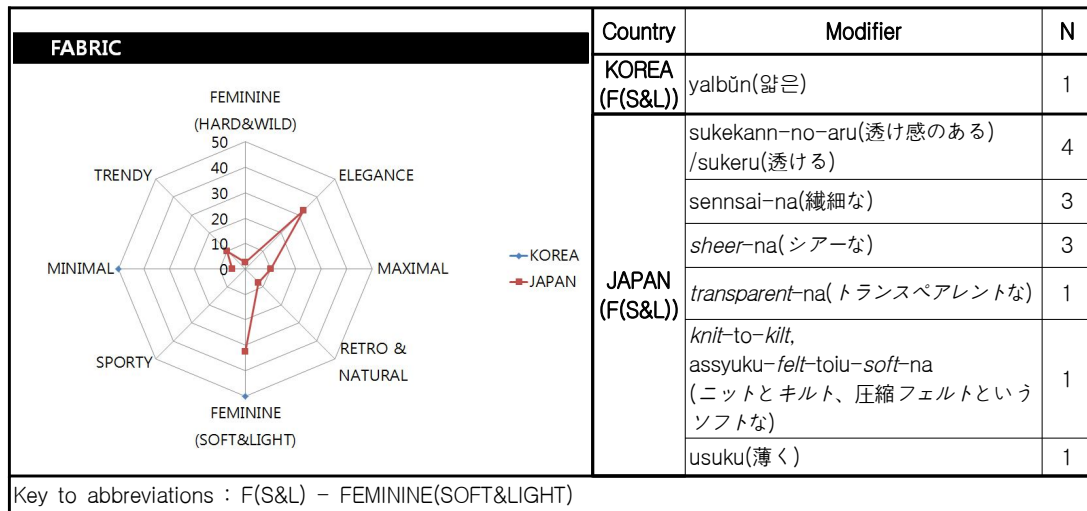


Table 5.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PATTERN」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1	7.1	3	9.4	4	8.7
FEMININE(SOFT&LIGHT)	0	-	0	-	0	-
ELEGANCE	0	-	2	6.3	2	4.3
SPORTY	0	-	2	6.3	2	4.3
MAXIMAL	10	71.4	6	18.8	16	34.8
MINIMAL	0	-	2	6.3	2	4.3
RETRO & NATURAL	3	21.4	6	18.8	9	19.6
TRENDY	0	-	11	34.4	11	23.9
Sum	14	100.0	32	100.0	46	100.0

Table 6.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PATTERN」, Examples of Modifier

	Country	Modifier	N
	KOREA (MA)	hwaryŏ-han(화려한)	4
		k'ŏdaran(커다란)	2
		kangryŏl-han(강렬한)	1
		changshiktoen(장식된)	1
		<i>paint-ga hŭllŏnaerin tüt'an</i> (페인트가 흘러내린 듯한)	1
		<i>flower pattern-ŭi na-yŏm print-ga totpoinŭn</i> (플라워 패턴의 나염 프린트가 돋보이는)	1
	JAPAN (MA)	hanayaka-na(華やかな)	3
		<i>graphical-na</i> (グラフィカルな)	2
		<i>kaigara-ya-hitode-no-gennsouteki-na</i> (具殼やヒトデの幻想的な)	1
	Key to abbreviations : MA – MAXIMAL		

2) LEATHER, LACE, KNIT, DENIM

첫째 LEATHER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의 경우, 전체 빈도는 FEMININE(SOFT&LIGHT) 8개(32%), TRENDY 6개(24%), ELEGANCE 5개(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FEMININE(SOFT&LIGHT)과 ELEGANCE 그룹이 한일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은 MAXIMAL 그룹에서, 일본은 TRENDY 그룹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는 여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소재가 많이 나타난 가운데, FEMININE(SOFT&LIGHT)와 ELEGANCE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표현된 반면, 한국에서는 MAXIMAL, 일본에서는 TRENDY 그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7).

다음으로 Table 8의 레이더 차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FEMININE(SOFT&LIGHT)와 ELEGANCE 그룹의 수식어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가죽 소재에서 나타난 공통의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

국은 MAXIMAL에, 일본은 TRENDY에 더 치우친 별도의 수식어표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지역적 특성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수식어표현은 한국은 ‘부드러운’이었으며, 일본은 ‘소프트한(ソフトな)’, ‘유연하게(しなやかに)/유연한(しなやかな)’ 등이 있었다.

둘째 LACE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은 전체적으로 FEMININE(HARD&WILD) 5개(23.8%), ELEGANCE 5개(23.8%)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난 빈도를 별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FEMININE(HARD&WILD)가 많이 나타난 반면에, 일본에서는 ELEGANCE 외에도 RETRO & NATURAL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대조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한일 모두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은 SPORTY, MINIMAL, TRENDY를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한국에서는 몇 개 항목에 수식어표현이 집중되어 나타난 데 비해, 일본은 좀 더 다수의 수식어표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able 9).

Table 7.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LEATHER」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0	-	0	-	0	-
FEMININE(SOFT&LIGHT)	3	30.0	5	33.3	8	32.0
ELEGANCE	2	20.0	3	20.0	5	20.0
SPORTY	1	10.0	0	-	1	4.0
MAXIMAL	3	30.0	1	6.7	4	16.0
MINIMAL	0	-	1	6.7	1	4.0
RETRO & NATURAL	0	-	0	-	0	-
TRENDY	1	10.0	5	33.3	6	24.0
Sum	10	100.0	15	100.0	25	100.0

Table 8.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LEATHER」, Examples of Mod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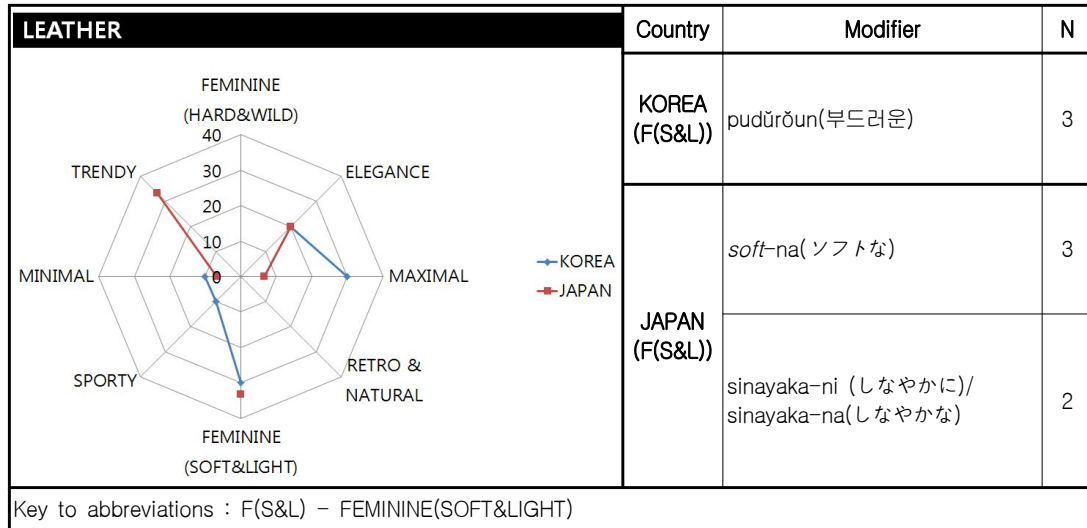


Table 9.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LACE」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3	42.9	2	14.3	5	23.8
FEMININE(SOFT&LIGHT)	2	28.6	2	14.3	4	19.0
ELEGANCE	0	-	5	35.7	5	23.8
SPORTY	0	-	0	-	0	-
MAXIMAL	2	28.6	1	7.1	3	14.3
MINIMAL	0	-	0	-	0	-
RETRO & NATURAL	0	-	4	28.6	4	19.0
TRENDY	0	-	0	-	0	-
Sum	7	100.0	14	100.0	21	100.0

Table 10의 레이더 차트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한국에서 많이 나타난 수식어표현 그룹은 일본에서 보다 적게 나타나고, 일본에서 많이 나타난 항목은 한국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레이스 소재의 활용 자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수식어표현을 보면 한국은 FEMININE(HARD&WILD) 그룹의 ‘관능적인’, ‘몸매를 강조하는’, ‘아슬아슬한’ 등인데 반해, 일본은 ELEGANCE 그룹의 ‘탁월한 장인기술이 만들어내는(卓越な職人技が生み出す)’, ‘엘레강트한(エレガントな)’, ‘쿠튀르라이크한(クチュールライクな)’, ‘눈부시게 아름다운(きらびやかな)’, ‘고저스한(ゴージャスな)’ 등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셋째 KNIT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은 전체빈도에서 RETRO & NATURAL 6개(37.5%), FEMININE(SOFT&LIGHT) 4개(25%)의 순으로 나타났다. KNIT 소재 역시 각국의 수식어표현 빈도에서는 전체의 경향과 차이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FEMININE(SOFT&

LIGHT), RETRO & NATURAL과 같은 그룹에 수식어표현이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전체 빈도 항목의 순위와 일치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여러 수식어표현 그룹에 골고루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11).

다음으로 Table 12의 레이더 차트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KNIT 소재에 대한 RETRO & NATURAL 수식어표현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치하였으나, 한국이 FEMININE(SOFT&LIGHT) 그룹의 수식어표현도 다수 나타난 것에 비하여 일본은 다른 수식어표현들에 골고루 나누어진 빈도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은 MAXIMAL의 수식어표현이 나타난 것에 반해, 일본은 MINIMAL의 수식어표현이 나타난 것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많이 나타난 수식어표현으로는 한국은 ‘굵은’, ‘포근한’, ‘손으로 짠’ 등이 있었으며, 일본은 ‘투박하게 뜨거나 짠(ざっくりと編んだ)’, ‘따뜻한(暖かな)’, ‘하이게이지의(ハイゲージの)’ 등으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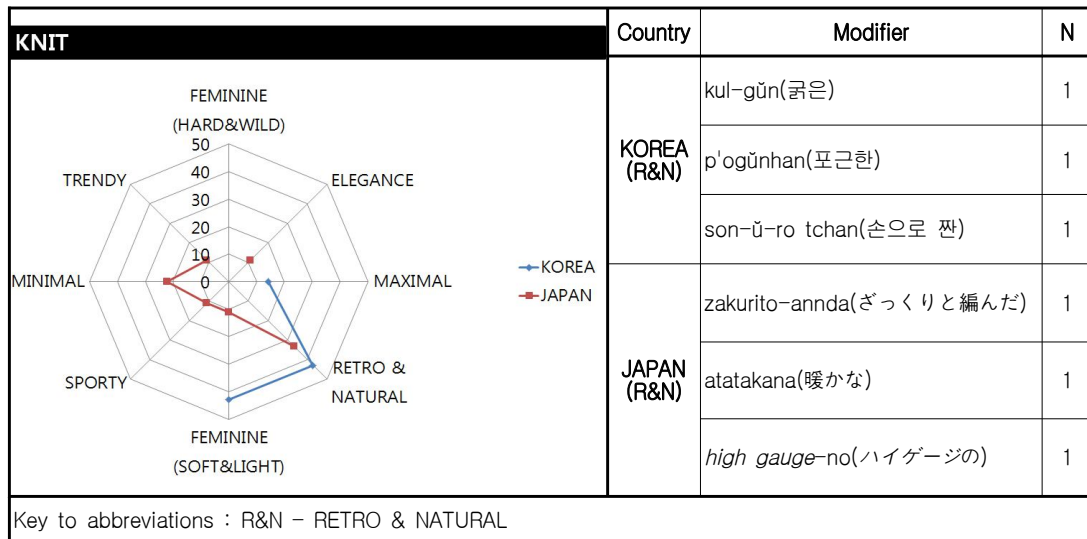
Table 10.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LACE」, Examples of Modifier

	Country	Modifier	N	
	KOREA (F(H&W))	kwannŭng-jŏgin(관능적인)	1	
		mommaerŭl kangchohanŭn (몸매를 강조하는)	1	
		asŭlasŭl-han(아슬아슬한)	1	
	JAPAN (EL)	takuetu-na syokuninnwaza-ga umidasu (卓越な職人技が生み出す)	1	
		elegant-na(エレガントな)	1	
		couturelike-na(クチュールライクな)	1	
		kirabiyaka-na(きらびやかな)	1	
		gorgeous-na(ゴージャスな)	1	
	Key to abbreviations : F(H&W) – FEMININE(HARD&WILD) / EL – ELEGANCE			

Table 11.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KNIT」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0	-	0	-	0	-
FEMININE(SOFT&LIGHT)	3	42.9	1	11.1	4	25.0
ELEGANCE	0	-	1	11.1	1	6.3
SPORTY	0	-	1	11.1	1	6.3
MAXIMAL	1	14.3	0	-	1	6.3
MINIMAL	0	-	2	22.2	2	12.5
RETRO & NATURAL	3	42.9	3	33.3	6	37.5
TRENDY	0	-	1	11.1	1	6.3
Sum	7	100.0	9	100.0	16	100.0

Table 12.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KNIT」, Examples of Mod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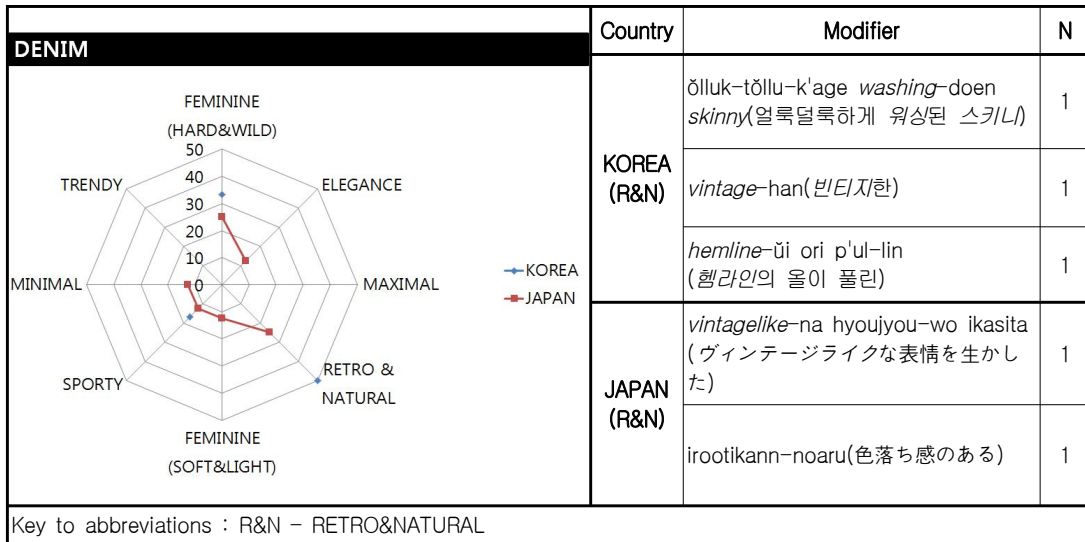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DENIM과 관련된 수식어표현은 RETRO & NATURAL 5개(35.7%), FEMININE (HARD&WILD) 4개(28.6%) 순으로 나타났다. DENIM은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6개의 소재 항목 중 한국과 일본의 경향이 전체 빈도와 일치하는 유일한 소재 항목으로, DENIM 소재에 관한 트렌드가 서로 일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 그룹에 있어서도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여러 수식어표현 그룹에 걸쳐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나, 이는 일본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여겨진다(Table 13).

다음으로 Table 14의 레이더 차트에서도 몇몇 수식어표현 그룹에 집중된 한국과, 여러 수식어표현 그룹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일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끝으로 한국은 '얼룩덜룩하게 워싱된 스키니', '빈티지한', '헴라인의 울이 풀린' 등의 수식어표현이 있었으며, 일본은 '빈티지라이크한 표정을 살린(グインテージライクな表情を生かした)', '물빠짐감이 있는(色落ち感のある)'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13. Frequency Analysis of Modifier Related with 「DENIM」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FEMININE(HARD&WILD)	2	33.3	2	25.0	4	28.6
FEMININE(SOFT&LIGHT)	0	-	1	12.5	1	7.1
ELEGANCE	0	-	1	12.5	1	7.1
SPORTY	1	16.7	1	12.5	2	14.3
MAXIMAL	0	-	0	-	0	-
MINIMAL	0	-	1	12.5	1	7.1
RETRO & NATURAL	3	50.0	2	25.0	5	35.7
TRENDY	0	-	0	-	0	-
Sum	6	100.0	8	100.0	14	100.0

Table 14. Radar Chart of Modifier Related with 「DENIM」, Examples of Modifier



3) TEXTURE

TEXTURE란 주로 촉각과 시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재의 표면적인 느낌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감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에 해당하는 총 339개(한국 145개, 일본 194개)의 수식어 표현들 중, 총 38개의 재질감에 해당하는 수식어표현(한국 13개, 일본 25개)을 따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

분석에 용이하도록 상반되는 개념으로 4쌍, 총 8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그룹들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ROUGH, CLEAN, DRY, WET, HARD, SOFT, LIGHT, HEAVY로 명명하였다. Figure 3에서 현대패션디자인 문헌에 의하면 ROUGH는 까슬까슬하다, 울퉁불퉁하다, 거칠다 등의 표면변화를 나타내는 재질감을 의미하고, CLEAN은 매끈매끈한, 섬세한, 평평한 등의 표면변화를 갖고 있는 재질감을 나타낸다. DRY는 습기가 없고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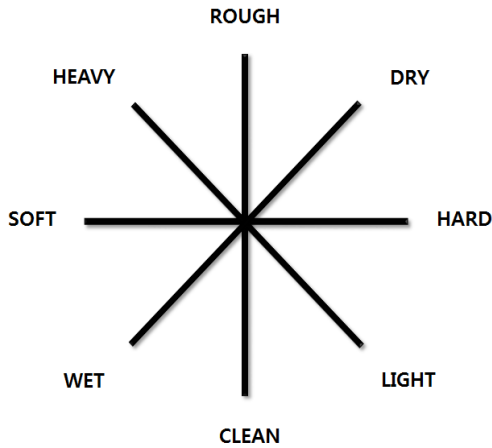


Figure 3. Grouping of Texture Modifier

조한, 마른, 사각사각하다, 꾸덕꾸덕하다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내는 재질감을 의미하고, WET는 광택감이 있는 듯한, 광택이 있는, 촉촉한, 매끈한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낸다. HARD는 단단하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내는 재질감을 의미하고, SOFT는 실키 터치, 부드러운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낸다. LIGHT는 얇은 편인, 꽤 얇은 비치는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내는 재질감을 의미하고, HEAVY는 꽤 두껍다, 두꺼운 편인, 두꺼운 등의 표면 변화를 나타낸다(Park et al., 2006).

분석 결과 전체적인 빈도에서는 총 38개의 수식어 표현 중 LIGHT가 12개(3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SOFT가 8개(21%), ROUGH와 CLEAN이 각 6개(15.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WET가 4개(10.5%), HEAVY가 2개(5.3%) 순이었으며, DRY와 HARD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봄, 여름 계절이 주가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재질감을 나타내는 수식어표현들이 주로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하면, 일본이 전체 빈도에 이어 재질감 관련 수식어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 SOFT와 WET가 각 3개(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비해, 일본은 LIGHT가 9개(36%)로 가장 많이 나타나 같은 봄

여름 소재라도 한국은 부드럽고, 광택감이 있는 재질감이 많이 표현된 반면, 일본은 얇고 비치는 재질감이 중심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Table 15와 같다.

다음으로 Table 16의 레이더 차트를 통해 양극을 이루는 재질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ROUGH-CLEAN이 축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 대비되는 재질감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당시 이 축을 통한 재질감의 대비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의 경우에는 HEAVY-LIGHT의 축을 통한 재질감의 표현도 나타나 일본에 비해 빈도는 약하지만, 재질감의 종류나 대비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 볼만 하다. 또한 Table 16에 많이 나타난 수식어표현을 각 나라별로 모아보았다.

3. 한일 수식어표현의 종합적 분석

이상의 결과를 총괄해 보면 Table 17과 같다. 이를 보면 소재별로 한 가지 이미지에 집중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PATTERN 항목에서는 MAXIMAL, LEATHER에서는 FEMININE(SOFT&LIGHT), KNIT에서는 RETRO & NATURAL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해당 됐다. 이에 비해 LACE에서는 FEMININE(HARD&WILD)와 ELEGANCE의 그룹이 각각 같은 빈도를 보였고, DENIM은 FEMININE(HARD &WILD)와 RETRO & NATURAL 그룹에서 거의 비슷한 빈도를 보여 해당 시즌에서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 LACE와 DENIM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추구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특이한 점을 비교 분석해 보면, PATTERN의 경우 한국은 MAXIMAL 이미지의 수식어 표현이 많았던 반면에 일본은 TRENDY 이미지의 수식어 표현이 그룹이 많이 나타나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보였다. 또한 LACE에서도 한국은 FEMININE(HARD&WILD) 이미지의 수식어 표현이 많았던 반면에 일본은 ELEGANCE 이미지의 수식어 표현이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수식어 그룹별로 보면 다른 그룹들에 비해 SPORTY, MINIMAL, TRENDY 그룹은 전체 소재

Table 15.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of Texture Modifier for each Country

Modifier group	KOREA		JAPAN		Total	
	N	%	N	%	N	%
ROUGH	2	15.4	4	16	6	15.8
DRY	-	-	-	-	-	-
HARD	-	-	-	-	-	-
LIGHT	2	23	9	36	12	31.6
CLEAN	1	7.8	5	20	6	15.8
WET	3	15.4	2	8	4	10.5
SOFT	3	23	5	20	8	21
HEAVY	2	15.4	-	-	2	5.3
Sum	13	100.0	25	100.0	38	100.0

Table 16. Radar Chart of Texture Mod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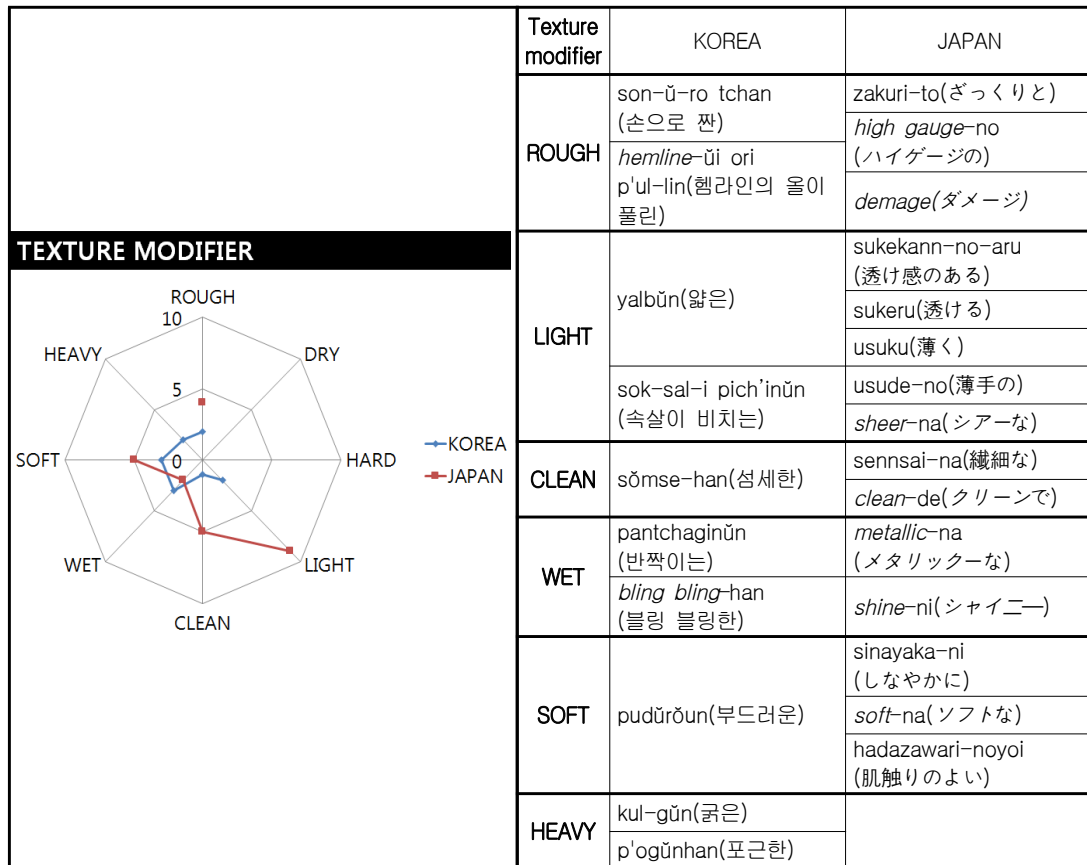


Table 17. The Trend of Material Related Modifier per Country

		FABRIC	PATTERN	LEATHER	LACE	KNIT	DENIM
F(H&W)	K	-	1	-	3	-	2
	J	1	3	-	2	-	2
	T	1	4	-	5	-	4
F(S&L)	K	1	-	3	2	3	-
	J	13	-	5	2	1	1
	T	14	-	8	4	4	1
EL	K	-	-	2	-	-	-
	J	13	2	3	5	1	1
	T	13	2	5	5	1	1
SP	K	-	-	1	-	-	1
	J	-	2	-	-	1	1
	T	-	2	1	-	1	2
MA	K	-	10	3	2	1	-
	J	4	6	1	1	-	-
	T	4	16	4	3	1	-
MI	K	1	-	-	-	-	-
	J	2	2	1	-	2	1
	T	3	2	1	-	2	1
R&N	K	-	3	-	-	3	3
	J	3	6	-	4	3	2
	T	3	9	-	4	6	5
TR	K	-	-	1	-	-	-
	J	4	11	5	-	1	-
	T	4	11	6	-	1	-

Key to abbreviations : F(H&W) - FEMININE(HARD&WILD) / F(S&L) - FEMININE(SOFT&LIGHT) / EL - ELEGANCE / SP - SPORTY / MA - MAXIMAL / MI - MINIMAL / R&N - RETRO&NATURAL / TR - TRENDY / K - KOREA / J - JAPAN / T - Total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SPORTY 그룹은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저조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MINIMAL 그룹 역시 한국의 FABRIC 관련 수식어표현을 빼면 미비한 비율인데, 한국에서의 FABRIC 관련 수식어표현은 극소수이므로 주목할 만한 특징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TRENDY 그룹과 관련해서는 일본잡지에서 PATTERN과 LEATHER 소

재와 관련해서 다수 등장한 것이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식어 표현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언어표현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동일한 표현으로는 ‘화려한’ - ‘화려한(華やかな)’, ‘섬세한’ - ‘섬세한(繊細な)’, ‘클래식한’ - ‘클래식한(クラシカルな)’, ‘빈티지한’ - ‘빈티지라이크한(ヴィンテージライクな)’ 등이 있었

으며, 한자어와 영어 등 외래어 표현에서 다수 나타났다. 반면 비교적 간결한 표현이 나타나는 한국의 수식어 표현에 비해 일본의 수식어 표현에서는 유의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얇은’과 비슷하게 쓰인 일본의 수식어 표현으로는 ‘얇은/얇박한(薄手の)’, ‘비치는 느낌이 있는(透け感のある)’, ‘시어한(シアーな)’ 등이 있었고, ‘부드러운’과 비슷한 표현으로 일본에서는 ‘유연한/나긋나긋한/낭창낭창한(しなやかな)’, ‘소프트한(ソフトな)’ 등이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감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수식어 표현들에는 영어와 같은 외래어가 많이 쓰인 것이 공통된 사항이며, 간결한 표현을 사실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수식어 표현에 부가적인 형용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더 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높은 빈도를 보인 4가지 주요 소재 이외의 기타 소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소재의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재의 전체 빈도에서 살펴보면 EMBROIDERY 13개(3.8%), SPANGLE 13개(3.8%), LUSTER 11개(3.2%), BEADS 10개(2.9%), DECORATION 10개(2.9%) 등과 같이 소재에 부가되는 장식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에 화려함을 더하는 가공법으로 더욱 존재감 있는 소재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이는 개성적이고 장식적인 소재들을 조합시키거나 강렬한 가시성을 지닌 소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도 일치한다. 다만, SPANGLE, LUSTER, BEADS 등은 일본 잡지에서 더 많이 표현되어, 일본에서 소재의 광택이나 글리터(glitter) 장식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나타났다.

두 번째로 춘하 시즌의 소재와 추동 시즌의 소재가 뒤섞여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CASHMERE, FEATHER, FUR, LAMB, SUEDE, TWEED, WOOL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추동 소재에 해당하던 소재들이 CHIFFON이나 ORGANZA 등과 같은 가벼운 소재들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Table 2). 이는 한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더욱 재빨리 앞선 시즌을 기사로 취급하고자 하는 한국 잡지의 특성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소재의 계절감을 무시하

거나 서로 믹스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의 영향이라고도 풀이해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잡지에서는 일본에 비해 다양한 소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해 한 소재 항목에 대해 다양한 수식어표현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잡지는 일본에 비해 정확한 소재 명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 잡지는 한국에 비해 소재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대신 한 소재에 관해서는 다양한 수식어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한일 간 특징으로 볼 수 있리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한국과 일본 모두 PLEATS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나타난 것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외 라이선스 패션잡지 『VOGUE』에 나타난 ‘글로벌 쓰여진’ 의복 특성, 특히 소재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한일 간의 소재 경향 및 소재 관련 수식어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PATTERN, FABRIC과 같이 넓은 의미로 지칭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고, 소재별로는 LEATHER, LACE, KNIT, DENIM 순이었다. 한국은 다양한 소재에 골고루 분포된 빈도를 보이는 반면에, 일본은 FABRIC 및 PATTERN과 같이 특정 소재를 지칭하지 않고 폭넓은 개념의 통칭으로 사용된 항목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소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소재 전체를 수식하는 일본 잡지 기사의 표현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각 소재마다 중점적으로 나타난 수식어표현의 그룹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PATTERN에서는 MAXIMAL, LEATHER에서는 FEMININE(SOFT&LIGHT), KNIT에서는 RETRO & NATURAL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LACE에서는 FEMININE(HARD&WILD)와 ELEGANCE의 그룹이 각각 같은 빈도를 보였고, DENIM은 FEMININE

(HARD&WILD)와 RETRO & NATURAL 그룹에서 거의 비슷한 빈도를 보여 해당 시즌에서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 LACE와 DENIM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가 추구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SPORTY, MINIMAL, TRENDY 그룹은 어떤 항목에서도 비중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TRENDY 그룹은 일본잡지에서 PATTERN과 LEATHER 항목에서 다수 등장하여,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외 상위 4가지 주요 소재 이외의 기타 소재들을 살펴보면 소재의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진 점과 춘하 시즌과 추동 시즌 소재가 뒤섞여 나타난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글로벌 트렌드의 경향과 부합한다. 또한 한국 잡지는 일본에 비해 정확한 소재명을 언급하고, 일본 잡지는 소재를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대신 한 소재에 관해 다양한 수식어표현을 사용하여, 한일 간 다른 특징을 드러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구 대상이 되는 한일 2012년 5-8월호의 패션잡지 『VOGUE』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소재 경향이나 그와 관련된 수식어표현이 등장하여 공통점을 지니기도 하지만, 각 나라별로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소재의 종류 및 빈도수, 동일 소재에 대해 나라별로 달리 나타나는 수식어표현의 양상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패션문화로 주목할 만한 점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수식어표현을 중심으로 연구방법론을 정립한 선행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한일 간 패션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재 관련 수식어표현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언어 구조에 대한 이해 및 번역의 문제 등에 한계점을 지니며, 분석 데이터가 방대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1보에서 추출된 8개 그룹의 수식어표현을 해당 패션잡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색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에 적용시킴으로써, 해외 라이선스 패션잡지들의 색상과 관련된 글로벌 경향 및 한국과 일본의 패션 컬러에 대한 문화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References

- Choi, K., & Kim, J. (2012). A study on the tensil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knits and appearance using 3D digital virtual clothing system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2), 151-162.
- Kim, J., & Yum, H. (2013). The characteristic of eco-friendly trend in fabric since 2000.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4), 75-89.
- Lee, J., Kim, S., & Kim, J. (2013). A study on the dynamic expression of fabrics based on RGB-D Sensor and 3D virtual clothing CAD system.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1), 30-41.
- Lee, S. (1990). *정서법자료*. [Chöngsöbööp-charyo], Seoul: Taehan-Kyogwasö Ltd.
- Moeran, B. (2004). A Japanese discourse of fashion and taste. *Fashion Theory, 8*(1), 35-62.
- Park, H. (2012). Eco-fashion industry trend and creative fashion design technic for zero-wast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6*(4), 29-45.
- Park, H., Lee, M., Yum, H., Choi, K., & Park, S. (2006). *Contemporary fashion design*. Seoul: Kyomunsa.
- Yum, H., Kim, E., Kim, J., Kim, C., & Chung, S. (2014).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Japan about design modifier which is represented in 『VOGUE』 overseas licensing fashion magazine.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8*(4), 1-20.

Received(September 21, 2014)

Revised(November 4, 2014; December 5, 2014)

Accepted(December 12, 2014)